

# “즐거운 탐험수업 언제 이뤄지나요”

선생님들 모두가 퇴근을 준비하거나 퇴근을 하는 시간. 교무실 창가에 책상을 두고 있는 K교사는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의 얼굴은 어두우면서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다. K교사가 정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들어온지도 어느새 10년이 조금 넘었다. 교직사회에서 중견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교직에 대한 애착은 남다른 면이 있었다. 그런 그가 퇴근시간에 왜 퇴근을 하지 않고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오전이었다. K교사는 모처럼 과학실에서 지구 자기장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복각방위계를 이용하여 복각을 측정하는 실험을 끝내고 각 분단별로 칠판에 실험결과에 따른 측정값을 기재하게 한 뒤, 측정방법과 결과를 토론했다. 별 문제없이 수업이 잘 진행되어 끝날 즈음 과학 과목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의 질문이 있었다. 『선생님, 복각방위계의 자침 방향을 보니 복각방위계마다 자침방향이 모두 다른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아뽀사! 순간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 K교사. 다시 확인해 보았다. 역시, 그는 수업시간 전에 사전실험을 통해 실험상의 유의점, 준비물, 방법 등을 철저히 파악하였지만 실험도구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불량교재를 이용한 오늘의 수업은 그에게는 생각하는 바가 많았던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 현장서 본 과학 교육



金 忠 漢  
(강원 횡성여고교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과학이 이루어 놓은 혜택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활동 역시 과학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대의 인간생활과 점점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만 할 과학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이 모두 과학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현대사회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학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에 부응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를 앞두고 교육부는 1993년,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설정했다. 과학교육이 미래 국제간의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지만 현재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실험 여건의 미비로 실험 및 실습을 통한 재미있고 즐거운 탐구수업 대신 강의식수업에만 의존해온 관계로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흥미가 없는 과목으로 인식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론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로 인하여 암기 주입식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창문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K교사 - 그의 머리속은 꽤나 복잡하다. 오늘의 수업을 위한 사전실험을 할 때 실험도구 하나하나의 불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질의 실험도구를 생산한 업체 및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실험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탓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그가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 획기적인 과학예산 확보, 시설환경 개선, 교사연수과정 개선 및 연수기회 확대 등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고쳐지거나 개선된 것도 별로 없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가. 혹시 K교사는 밖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큰 것을 목표로 하지말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을 하자. 과학교사가 수업시간에 만족을 느끼며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험실만이라도 갖추어 줄 수 있는 여건과 양질의 실험기자재 공급이 어떤 구호보다도 중요하다고.

금년, 특히 새정부 출범을 맞이한 후 처음인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에 K교사가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져 K교사의 얼굴에 밝은 웃음의 꽃이 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